

‘자매추행’ 만취 전경 불구속처리

90.7.31

검·경찰 칼로 옷찢어 벗긴뒤 20분간 행패

전경이 외박을 나와 술을 마신 뒤 여자들만 있는 자취방에 들어가 칼로 위협, 옷을 찢어 벗기는 등 추행을 하다가 집주인에게 불 잡혔는데도 검찰과 경찰에 의해 불구속처리됐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9일 충북도경 제2503 전경대 소속 박종희(22)수경을 야간주거침입과 추행미수 혐의로 불구속 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수경은 이날 0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현아무개(42)씨 집 2층에 세들어 사는 정아무개(2·여)씨 자매방에 들어가 부대에

서 가지고 나온 10cm 길이의 칼로 옷을 찢어 벗긴 뒤 “군대에 가면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데 너희도 그런 여자냐”며 2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박 수경은 집주인 현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뛰어내렸다가 집주인 현씨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박 수경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추행 부분을 무시한 채 야간 주거침입 및 추행미수 혐의로만

인정, 검찰에 불구속 지휘품신을 올려 불구속 지휘를 받았다. 현행범에 따르면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는 추행으로 간주된다.

90.10.28

술취한 술집 여종업원 청원경찰이 성폭행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올림픽공원에 들어가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려던 김아무개(18·술집종업원)양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신준섭(39)씨 등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소속 올림픽공원 청원경찰 3명에 대해 절도와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